

『黃帝內經』運氣理論의 循環組合의 特性에 대한 小考

慶熙大學校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教室¹

白裕相¹ *

关于黃帝內經運氣理論循環組合特性的思考

白裕相¹ *

¹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运气学理论中有人类通过经验便能很容易感知的体现原原本本的自然变化的规律, 也有通过经验很难感知, 只有通过法则才能认识的规律。例如, 如果不提前看日历的话我们将很难知道哪一年是甲子年, 我们通过思考所能知道的只是甲子年之后是乙丑年这一事实。当我们说“宇宙自然的变化是反复循环的”的时候, 致力于运气学研究的古人们对于通过人类的经验很难感知的宇宙本体的循环运动是怎样想的, 又是通过什么规律来对此现象加以表现的呢? 本论文就此进行了研究。

人类从现实中很难体验到的思维性, 假想性循环运动的组合往往被设定在一年或数年的周期内, 具有从循环链的某一特定点开始进行直线性变化的形式。比起我们在规定的周期内能够体验到的规律性变化, 这种假想循环运动的形式主要用于说明现实生活中难以预测的不规则变化。换言之, 在变幻无常的现实中也存在某种看不见的规则性, 这种规则性从根本上是以我们能够感知的循环世界为基础的。

对现实中无法预测的变化加以说明的这种循环组合并不是按照五行的顺序从木开始, 而是从循环链的中间不断的变化着开始的顺序的原因是因为所谓的自然变化是指从一成不变的规律中摆脱出来相互混合从而变得混乱的矛盾出发的, 而且这种矛盾的发生和解决直接意味着所有生命现象的创造和变化。

Key Words : 运气学, 循环组合, 主运, 客运, 主气, 客气, 三阴三阳

I. 序論

運氣學은 인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변 환경의 변화들을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을 종합하여 분석 이해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이 관찰된 변화 속에는 일정한 規律이 내재되어 있는데 실제 運氣學의 운용은 이러한 規律들을 전제

로 하여 현실의 변화를 파악하고 보정해 나가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運氣學의 규율 중에는 인간이 경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자연의 변화를 그대로 따르는 規律이 있으며, 한편 경험적으로 느끼기 어렵고 단지 법칙으로만 추정할 수 있는 規律이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해가 甲子年이라는 사실을 달력을 보고 미리 알지 않는 상태에서는 甲子年이라는 인식을 하기 어렵고 단지 작년이 癸亥年이었으므로 올해가 甲子年이라는 것만 추정하여 알게 되는 것이다. 물론 六十甲子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초감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미 정해진 規律을 쫓아서 현상을 파악하게 된다.

規律이란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는 현상

* 교신저자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E-mail : baikys@khu.ac.kr Tel : (02) 961-0326,
본 研究는 中國 長春에서 개최된 中國中醫藥學會 全國中醫
運氣學 學術研討會(2009. 7. 18) 발표 論文을 수정·보완한
것임.
접수일(2009년 7월 25일), 수정일(2009년 8월 6일),
게재확정일(2009년 8월 14일)

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볼 때 循環運動의 형태로 드러난다. 특히 東洋學에서는 우주 자연의 변화가 직선적이지 않고 循環 反覆의이라고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우주 자연의 변화가 반복적으로 순환한다고 하였을 때 그 중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우주 本體의 循環運動에 대하여 運氣學을 깊이 연구한 古人들이 어떻게 생각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運氣學에서 일반적인 인식의 범위에서 벗어난 變化의 規律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표현하였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主運, 客運, 主氣, 客氣 등의 특성과 서로의 상관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I. 本論

철학의 여러 주제 중에서 宇宙의 모든 變化는 순환 반복하는가라는 문제가 있다. 순환적 세계관과 직선적 세계관은 관찰자의 사유방식에서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 순환적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내재된 規律의 존재를 전제로 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발전의 개념보다는 안정적이고 조화를 중시하는 쪽으로 인간의 思惟를 유도한다. 단 순환의 주기가 매우 길고 그것을 바라보는 主體가 아주 미미한 존재일 경우에는 순환 반복이 관찰자에게 큰 의미가 없으며 오직 직선적인 변화로만 느껴질 뿐이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자연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循環運動 단위는 1년과 1일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運氣學에서 중심이 되는 순환 단위는 바로 1년의 변화이다. 運氣學에서는 1년의 시작을 일반적으로 동지, 동짓달 또는 음력 정월 1일로 잡지 않고 大寒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1년을 단위로 하여 主

運, 客運의 循環運動에서는 5步의 기간으로 나누고 있으며, 主氣, 客氣의 循環運動에서는 6步로 나누고 있다.¹⁾ 이 중에서 循環組合의 성격이 강한 客運, 客氣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서로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1. 사계절 循環과 主運, 主氣

1년 사계절 변화의 순환성은 인류가 출현하여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만큼 분명한 기후의 현상으로 드러나며 실제 인간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運氣學에서 主運과 主氣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사계절의 순환성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개념이다.

主運의 경우는 角, 徵, 宮, 商, 羽 즉 木, 火, 土, 金, 水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며, 主氣의 경우도 厥陰, 少陰, 少陽, 太陰, 陽明, 太陽의 木, 火, 土, 金, 水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서 모두가 春夏秋冬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主運과 主氣의 主의 의미는 해마다 갈마들어오는 客運, 客氣와는 달리 마치 정해진 거처를 가진 주인과 같이 늘 변함없는 規律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반대로 客의 의미는 손과 같이 정처 없이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客氣의 순환을 살펴보면 主氣와 비슷하게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主氣의 순서가 오히려 五行의 規律를 따르기 위하여 원래 客氣의 순서를 바탕으로 太陰과 少陽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원래 客氣의 순서란 三陰과 三陽이 각각 前과 後로 분리되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陰陽運動의 측면에서 더 規律性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六氣에 있어서는 客氣의 三陰三陽 순환이 원래 더 근

| | 循環의 順序 | 規律의 特性 |
|----|------------------------|----------|
| 主運 | 角-徵-宮-商-羽 | 五行의 規律 |
| 主氣 | 風木, 君火, 相火, 濕土, 燥金, 寒水 | 五行의 規律 |
| 客氣 |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 | 三陰三陽의 規律 |

표 1. 主運, 主氣, 客氣의 循環 順序와 規律의 特性

| 客氣 六步 | 初之氣 | 二之氣 | 三之氣 | 四之氣 | 五之氣 | 終之氣 |
|-------|------|------|------|------|------|------|
| 卯酉之年 | 太陰濕土 | 少陽相火 | 陽明燥金 | 太陽寒水 | 厥陰風木 | 少陰君火 |

표 2. 卯酉年の 客氣 循環 順序

본적인 循環組合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主運, 主氣, 客氣 등의 순환 차례에 대한 비교를 표 1에서 정리하였다.

해마다 변하지 않는 일정한 규율이 왜 五行의 원리를 따르며 六氣의 客氣 변화가 왜 三陰三陽의 순서를 따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五行은 相生 相克의 관계 속에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것을 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主運과 主氣는 五行의 원리에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六氣는 元氣의 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항상 끊임없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설명하므로 客氣는 六數를 그 원리로 삼고 있다.²⁾ 단, 客運의 경우에는 五運 자체가 六氣보다 五行의 원리 위에 성립한 것이므로 비록 해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를 표현하고는 있으나 五行의 規律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2. 客氣 循環의 組合

客氣의 순환에서 그 해의 地支가 무엇인가에 따라 司天의 자리에 어떠한 氣가 들어오는가가 달라진다. 이것은 전체적인 순환의 조합은 바뀌지 않은 채 그 순환 고리의 어느 한 곳을 잘라서 그것을 시작점으로 하여 직선적인 순서로 나열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해의 地支가 卯나 酉가 되어 司天의 자리에 陽明燥金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司天이 三之氣이므로 初之氣는 客氣의 순서상 太陰濕土가 된다. 그리고 三陰三陽의 반복 순환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太陽寒水는 陽明燥金 다음의 四之氣로 들

어온다. 그런데 五之氣와 六之氣의 경우에는, 이미 그에 앞에서 三陰三陽의 太陽寒水로 순서를 마쳤음에서도 다시 厥陰, 少陰이 들어오는 것이다. 즉 원래 三陰三陽 순환에서 初之氣와 二之氣에 있어야 할 厥陰, 少陰이 다른 기운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五之氣와 六之氣에 들어와 다시 순환의 순서를 시작하는 것이다. 순환 고리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처음부터 組合이 정해져 있다가, 어느 한곳에서부터 순서를 시작할 때에도 원래의 組合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표 2에서 이를 예시하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主氣 循環의 마지막에 위치한 太陽寒水の 기운과 循環의 첫 번째인 厥陰風木의 기운이 서로 어느 정도 잘 이어지는가이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상세계는 일반적으로 相生의 관계를 통하여 국면이 전환되는데 太陽寒水가 다음 순환의 시작인 厥陰風木을 낳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실에서 양자의 결합이 미미하다 하더라도 이러한 主氣 순환의 組合이 가능한 이유는 가상적으로 연결되는 전체적인 홀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初之氣의 太陰濕土에서부터 四之氣의 太陽寒水까지 정해진 規律에 의해 循環을 마치고 나서 다시 厥陰風木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미 고리 모양으로 정해진 가상의 循環조합이 홀로그램처럼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에서 이러한 홀로그램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가상의 循環 組合은 주로 현실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데 절대적인 세력으로 보면 主運, 主氣의 그것보다 크지 않다. 예를 들어 봄에 따뜻한 봄기운이 나타나는 것이 곧 主運 또는 主氣인데 이것은 어느 해나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客氣의 경우에는 해마다 다르게 들어와서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그 세력이 主運, 主氣에 비하여 크지 않다. 예를 들어 봄에 太陽寒水가 들어왔다면 봄의 주된 기운은 바탕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약간 쌀

1)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p.34.

2) 象數學적으로 보면 五數는 相生 相剋의 관계를 통하여 萬物의 運動變化 原理가 안으로 내재되는 것을 표현하며, 六數는 五行의 火가 君火와 相火로 분화되면서 上下 內外 表裏의 氣 循環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끊임 없는 氣의 變化 양상을 표현하는데 주로 六數가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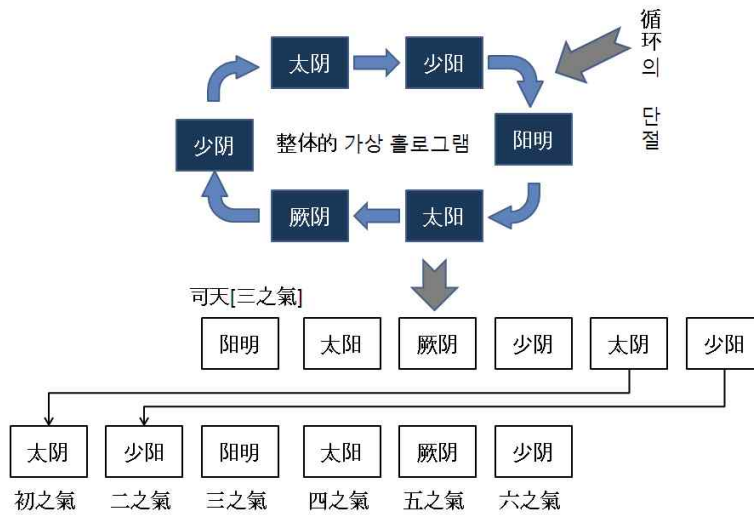


그림 1. 卯酉년의 客氣 循環 組合

쌀한 봄이 되는 것이지, 원래 太陽寒水의 성질이 겨울에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자연환경이 얼어버리는 봄이 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미미한 변화의 차이가 우리 몸의 항상성을 파괴하고 면역성을 떨어뜨려 병을 일으키므로 病因의 관점에서 보면 主運, 主氣보다 客氣가 실제 영향력이 더 큰 것이다. 그림 2에서 이를 정리하였다.

해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主運과 主氣처럼 우리가 현실에 쉽게 느낄 수 있는 반복 순환의 변화와 달리, 해마다 다르게 각 시기마다 미미하게 차이가 나는 변화 속에서도 미리 정해진 어떠한 循環의 組合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循環의 특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循環 고리의 어느 지점을 시작점으로 하여 직선적으로 펼쳐놓은 것이 바로 客運과 客氣이다. 客運

과 客氣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순환의 개념은 현실의 세력으로 보면 미미하고 해마다 순서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관념적이고 현실보다는 가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主氣와 客氣의 순서를 비교해보면, 主氣의 경우에 우리가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느낄 수 있는 五行의 순서에 따라서 少陰 다음에 같은 火에 속하는 少陽이 바로 이어지지만 客氣의 경우에는 원래 三陰三陽이 가지고 있는 순서를 가상적 순환 조합으로 정하여 少陰 다음에는 太陰이 오고 있다.

三陰三陽의 循環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陰陽이 消長하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서 생명체의 形質 변화와 氣의 변화를 함께 설명하는 모델이다. 일반적으로 陰陽은 단순히 상태의 多少를 말하는데,³⁾ 三陰三陽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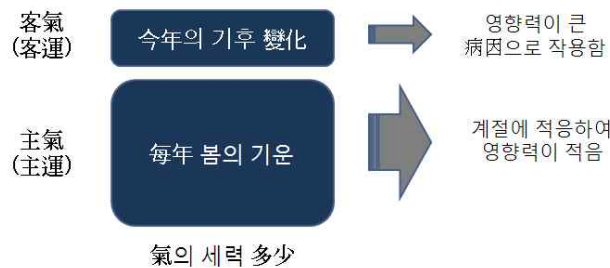


그림 2. 主客 運氣의 세력 多少와 영향력

여기에 시간적인 변화 개념을 추가한 것이다. 대상을 五行으로 표현하든 陰陽의 變化로 표현하든 큰 차이는 없으나 원래 시간적인 변화는 주로 五行의 循環原理로 설명하고 陰陽은 多少의 편차로 현상 자체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三陰三陽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은 우주의 모든 것이라기보다 주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라 할 수 있다. 즉, 生長收藏의 循環을 유지하는 독립된 생명체의 변화를 표현하는데 주로 三陰三陽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생명체가 아닌 자연의 변화라 하더라도 봄에 싹이 터서 겨울에 말라죽을 때까지 유기체와 같은 生長收藏의 변화를 겪는다면 그것도 三陰三陽으로 표현할 수 있다.

太少陰陽의 개념이 運氣七篇 이외의 여러 곳에서 臟腑論, 經絡論과 결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⁴⁾ 運氣篇의 三陰三陽 理論은 標本中の 개념을 포괄함으로써 陰에 속하는 形質과 陽에 속하는 無形의 氣의 變化를 동시에 설명해 내어 더욱 발전된 陰陽論의 형태로 정리된 것이다. 자연계의 변화를 보더라도 봄철에 단순히 기온이 따뜻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들이 자라고 만물이 자식을 낳는 등 생명체적 변화를 하게 되는데, 이때를 厥陰風木으로 표현하게 된다. 厥陰이 始初에 陰이 자라는 형국을 말하는 동시에 그 속에는 반드시 風木의 기온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⁵⁾ 이때 厥陰은 필연적으로 風木과 연결되는 것이지 다른 것과 연결될 수는 없다.

또한 중요한 것은 厥陰과 陽明을 시간적 初中末의 단계 중에서 따로 설정해 둔 것인데, 厥陰은 形質의 변화에 있어서는 처음 자라기 시작하는 출발점과 마지막으로 형질이 완성되고 난 정지 상태가 곧 중요한 하나의 시기를 형성하므로 이를 독립시켜서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陽明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흘러 다니는 氣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움직임의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陽氣의 세력이 消長하는 속에서 強弱과 多少가 중요하므로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국면을 陽明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三陰三陽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처음에 厥陰부터 시작하여 形質을 太陰 단계까지 키워야 밖에서 氣를 받아들여 이를 융합하고 소화해 낼 수 있으며, 少陽의 단계를 지나 이를 精化하고 收斂함으로써 실질적인 '나'의 氣로 재생산할 수 있게 되고 최종적인 太陽의 단계에서 寒水 속에 精으로 간직되는 것이다.

비록 三陰이 앞에 배속되고 三陽이 뒤에 배속되어 각각 形質과 氣를 대표하고 있으나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標本中氣에 의하여 陰陽의 形氣가 항상 공존하도록 하여 유기체의 表裏 特性을 모두 설명해 낼 수 있다.

3. 客運 循環의 組合

客氣의 경우 가상의 循環 組合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 해마다 시작점을 달리하여 직선으로 나열하되 循環 고리의 연속성은 계속 이어졌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五運 五步의 순환을 살펴보면, 우선 主運은 五行의 순서에 맞추어 氣가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太少相生을 거듭하고 있다. 太少相生의 의미는 모든 사물이 끊임없이 陰陽의 消長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五運의 세력이 陽의 운동을 통하여 팽창하여 커진 것이 태이고 陰의 운동을 통하여 수축하여 작아진 것이 少이다.

客運의 순환도 主運의 循環原理에 따라 木, 火, 土, 金, 水의 순서와 太少相生의 規律를 따르고 있다. 단 循環 고리의 어느 특정 부분을 잘라서 시작점으로 삼아 전개되는 것은 客氣의 경우와 동일하다. 예를 들어 土運太過의 해에는 표 3의 경우와 같이 太宮을 중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233 「天元紀大論篇」에서 “帝曰, 善. 何謂氣有多少, 形有盛衰. 鬼臾區曰, 陰陽之氣, 各有多少, 故曰三陰三陽也. 形有盛衰, 謂五行之治, 各有太過不及也. 故其始也, 有餘而往, 不足隨之, 不足而往, 有餘從之. 知迎知隨, 氣可與期.”라 하였다.

4)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22.

5)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83. 陽生陰長과 陽殺陰藏에 대하여 “이는 天地의 陰陽이 萬物에 하는 작용을 말한다. 一年 四時의 계절에서 보면, 봄에는 陽氣의 發揚으로 萬物이 生하고 여름에는 陰氣의 작용으로 形體를 부풀려 한껏 자라며, 가을에는 찌꺼기를 떨어내 버리고, 겨울에는 가을에 거두어들이 陽氣를 陰氣가 잘 갈무리하여 속에 감추어둔다.”라 하여 厥陰에서부터 形質이 자랄 때에도 반드시 내부적으로 陽氣가 작용함을 설명하였다.

| | | | | | |
|--------|----|----|----|----|----|
| 土運太過之年 | 一步 | 二步 | 三步 | 四步 | 五步 |
| 主運 五步 | 太角 | 少徵 | 太宮 | 少商 | 太羽 |
| 客運 五步 | 太宮 | 少商 | 太羽 | 太角 | 少徵 |

표 3. 土運太過년의 主運 客運 五步

심으로 前後로 太少相生을 하여 主運의 경우에 太角, 少徵, 太宮, 少商, 太羽의 조합을 가진다. 客運의 경우에는 太宮이 第一步로 들어오는데,⁶⁾⁷⁾ 처음에 정해지는 가상의 循環 組合 속에서 역시 太少相生을 하므로 太宮, 少商, 太羽의 순서로 三步까지 들어온다. 그 다음으로 四步와 五步에서는 太少相生에 따라 少角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組合의 구성에서 가장 앞에 위치해 있던 太角이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太宮, 少商, 太羽, 太角, 少徵의 순서를 나타내게 된다.

이 경우 太羽 다음에 太角이 들어와서 太少相生의 원칙에 맞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1년을 시작할 때에 이미 客運의 조합이 가상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홀로그램적인 循環組合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환 고리의 어느 한 지점에서 직선적으로 펼쳐나가기 때문에 太少相生에 맞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며 이는 곧 이러한 循環組合이 현실보다는 가상적으로 설정됨을 의미한다. 현실에서 관찰되는 모든 사물들은 太少相生의 陰陽 消長 運動을 하기 때문에 일부의 注釋家들은 이것이 현실의 太少相生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글자를 고쳐야 한다고 보았으나,⁸⁾⁹⁾ 客運이 가지고 있는 가상의 循環性을 이해한다면 『黃帝內經』에서 客運에 대하여 太少相生에 들어맞지 않는 순서대로 기술한 내용이 정확한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 3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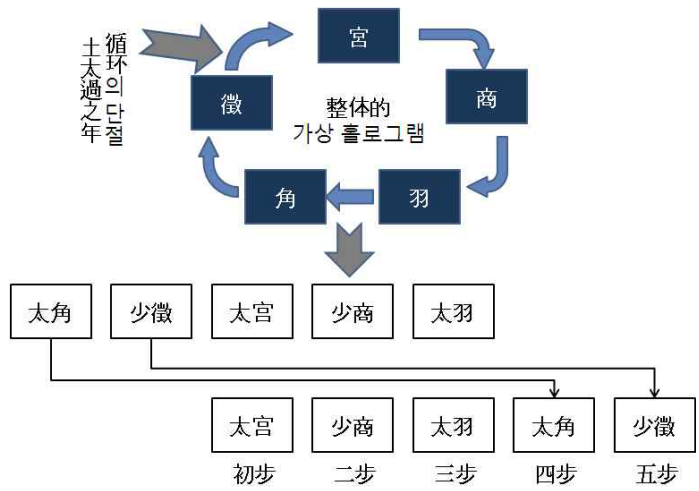


그림 3. 土太過년의 客運 循環 組合

6) 王琦의 4인.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370.
 7) 程思德. 素問注釋滙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13.

8) 任應秋의 『運氣學說』(서울. 東文選. 1994. p.108.)에서는 客運의 太少相生을 강조하여 甲年の 경우 太宮, 少商, 太羽, 少角, 太徵의 순서로 설명하고 있다.
 9) 方約中, 許可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

이러한 관념적 循環 개념이 처음에 전체적인 순서를 결정할 때에는 현실의 變化 規律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主運의 角, 徵, 宮, 商, 羽 五行 순서는 바로 현실의 變化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客運도 이러한 五行의 變化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客運의 경우 太少陰陽 運動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太少相生의 현실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循環 고리의 어느 지점을 끊어서 그곳을 시작점으로 하여 미리 정해진 組合에 따라 나열되어 끊어진 고리의 앞부분이 뒤로 와서 붙게 되는 과정 속에서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主氣, 客氣의 경우에는 主氣는 현실의 五行 순서를 따르지만 客氣는 六氣의 三陰三陽 變化를 따르고 있는데 三陰三陽 變化는 主氣의 五行 變化에 기반을 하면서도 形質과 氣의 變化를 함께 나타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져 少陽과 太陰의 위치가 바뀌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客運과 客氣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循環 組合을 현실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비교적 관념적 또는 가상적인 循環 組合이라 규정할 수 있다.

4. 五運과 六氣의 차이점

五運과 六氣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五運의 變化는 五行의 規律성에 따라 항상 일정하게 순환한다. 五步의 精確한 交司時刻에 의하여 運이 바뀌는 것도 정해진 規律에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¹⁰⁾ 五運이 비록 현실의 五行變化를 그대로 표현하고는 있으나 각 運이 항상 정확하게 갈마들어 用事한다는 점에서 보면, 그 만큼 六氣에 비해서 規律에 부합하고 變化를 허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變化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은 우리가 그 경계를 느낄 수 없이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지만 특정한 날의 특정한 시간에 갑자기 계절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五運의 變化는 해마다 일정하게 똑같은 순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자연현상과 동일하지만, 한편으로는 變化의 양상을 설명하기 보다는 精確한 規律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의 다양한 變化와는 거리가 있다. 표 4에서 五運과 六氣의 특성 차이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五運의 순환 중에서 客運의 경우에는 太少相生이 어긋나게 들어오는 것과 같이 현실과 거리가 있는 가상적인 循環의 組合을 가지고 있는데, 五運의 規律을 따르는 특성과 이러한 가상적인 循環의 組合이 합쳐진 결과는 더욱 더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變化와는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客運의 경우는 실제 질병을 일으키는 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內經』 運氣篇에서 이로 인한 질환에 대하여 언급하지 거의 하지 않았다.¹¹⁾ 질병은 일정한 規律에 따라 계절이 바뀌는 것보다는, 예년의 기후보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생겼을 때 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客運의 설정은 우리가 느끼는 六氣의 세계가 아니라 다른 영향력에 의하여 받게 되는 氣가 아닌 요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현실의 미미한 變化까지 최대한 고려하기 위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추정된다. 그림 4에서 主運과 客運의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이에 비하여 六氣의 경우에는 각 계절마다 항상 變化하고 있는 편차를 인식하여 恒常性보다는 變化性을 중시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매우 현실에 가깝다.

| | 規律性 | 現實性 | 變化性 |
|----|-----|-----|-----|
| 五運 | 多 | 少 | 少 |
| 六氣 | 少 | 多 | 多 |

표 4. 五運과 六氣의 특성 차이

生出版社, 1984, p.236.
1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243 「六微旨大論」에서 는 六氣의 交司時刻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림 4. 主運과 客運의 특성



그림 5. 主氣와 客氣의 특성

그런데 三陰三陽의 가상적 循環 組合을 가지고 있는 客氣의 경우를 보면, 어느 해나 동일하게 循環하면서 세력이 강한 主氣 위에 客氣가 더해져서 미미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오히려 현실에서 많은 질병을 만들어내게 된다. 즉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六氣의 변화 속에서는 오히려 恒常性보다 미미한 변화를 일으키는 客氣의 순환이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¹²⁾ 그러므로 『素問』 「六元正紀大論」에서 客氣 三陰三陽의 政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질환과 대처 방법을 자세히 언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¹³⁾ 그림 5에서 主氣와 客氣

의 특성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客氣와 客運을 비교하면 모두 관념적이고 가상적인 循環 고리의 어느 부분을 끊어서 그 시점을 시작점으로 삼아서 순서를 직선적으로 늘어놓은 방법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客運은 五運 자체가 실제 현실의 變化性보다는 五行 循環의 일정한 規律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客運의 관념적인 순환이 더욱 더해져서 현실로부터 멀리 멀어지게 된다. 따라서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크게 작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客運이 다른 主運, 主氣, 客氣에 비하여 질병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단지 미미한 변화까지 파악하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고려해 볼 조건인 것이다. 六氣의 경우는 그 개념 자체가 현실의 변화를 중심으로 해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客氣의 순환이 가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질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요소

1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262 「六元正紀大論」에서 客氣 司天의 政을 설명하면서 특정 司天의 해에 해당하는 客運의 변화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질병의 발현과 대응 방법은 기술하지 않고 있다.

12) 인간의 恒常性이 어느 한계범위 안에서 유지되다가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 이에 대응하기 어려워져서 결국 疾病을 유발시키게 되는데 세력이 비교적 작은 六氣의 변화도 이러한 한계범위를 넘어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1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硏究會, 1992. p.262 「六元正紀大論」에서 특정 司天의 해에 각 客氣의

六步마다 나타나는 기후 및 자연현상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으며 발생하는 질병의 양상과 이에 대처하는 五味 活用법을 설명하고 있다.

| | 공통점 | 차이점 |
|----|---|--|
| 客運 | 관념적 가상의 循環 組合을 바탕으로 특정 지점에서부터 직선적으로 배열하는 방식 | 五運의 恒常性을 바탕으로 현실성이 적은 특성으로 인하여 질병 발생에 영향력이 미미함 |
| 客氣 | | 六氣의 變化性으로 바탕으로 현실의 다양한 변화를 중시하여 질병발생에 영향력이 큼 |

표 5. 客運과 客氣의 공통점과 차이점

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五感を 통하여 느끼는 六氣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몸이 恒常性을 가지고 외부 변화에 대처하다가 外部의 氣變化가 갑자기 나타나면 그 세력이 비록 미미하더라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¹⁴⁾ 표 5에서 客運과 客氣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정리하였다.

4. 기타 循環 組合

1년을 단위로 나타나는 客運이나 客氣의 循環 組合보다 週期가 더 큰 것은 바로 十干과 十二支에 따라 10년과 12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循環 組合이다. 天干의 경우 소위 夫婦配屬에 의하여 해마다 大運이 다르게 들어오는데, 十干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甲年의 경우에는 甲己合土하여 土運이 用事를 하게 된다. 이 경우도 원래는 十干은 史記 등 고대 문헌에 언급한대로 甲부터 癸까지 순서대로 木火土金水에 배속되어 五行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¹⁵⁾ 萬物의 形質과 바탕을 상징하는 土運을 중시하여 순환의 조합 중에서 土運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 경우도 五行의 순서를 따르는 소위 兄弟配屬보다는 甲와 己가 결합하여 土氣를 化生하는 變化의 양상을 중시

하였기 때문에 가상의 循環 組合 原理를 따르게 된다. 甲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木의 성질은 잘 드러나지 않고 萬物 變化의 밑바탕에 잠재되어 있으며, 甲과 己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土運이 오히려 현실의 변화를 주관하게 된다.¹⁶⁾

또한 十二支의 경우에서도 十二支가 원래 가지고 있는 地上 方位의 五行 속성이 아니라 正化, 對化에 의하여 새로운 기운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 子와 午가 만날 경우 午에서 正化가 일어나고 子에서 對化가 일어나 少陰君火의 氣를 만들어낸다. 이때 子가 가지고 있는 北方水의 고유한 특성보다도 子와 午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少陰君火의 생명력이 만물을 변화시키는 六氣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보았기 때문에 厥陰風木부터 순서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少陰君火부터 끊어서 循環 組合을 시작하는 것이다. 표 6에서 十干과 十二支의 循環 組合 특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 결합 원리 | 시작점 | 生化 특성 |
|-----|--------|-----|-------|
| 十干 | 夫婦配屬 | 甲己 | 土運 |
| 十二支 | 正化, 對化 | 子午 | 少陰君火 |

표 6. 十干 十二支의 循環 組合 特性

14) 『內經』運氣篇을 살펴보면 主運, 客運, 主氣에 따른 질병 발생보다 客氣가 들어와 客主加臨한 상황에서 발병하는 질병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15) 司馬遷. 全注全釋史記.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5. p.1141.

16) 陽木의 甲과 陰土의 己가 만나서 土運을 化生하는 것은

III. 結論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관념적이고 가상적인 循環運動의 組合은, 1년 또는 수년의 일정한 주기 속에서 가상적으로 미리 설정되며 그러한 순환의 고리 중에서 특정한 어느 한 중간 지점을 끊어서 그곳을 시점으로 하여 직선적인 변화를 펼쳐가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상 循環 運動의 형식은, 우리가 항상적인 週期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일정한 規律의 특성을 설명하기 보다는, 미리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나는 현실의 불규칙한 변화들을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궁극적으로 불규칙성에 대한 이러한 해석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의 변화라 하더라도 그 속에 일정한 規律가 내재되어 있음을 강조한 결과이다. 즉, 변화 무쌍한 현실도 어떠한 보이지 않는 규칙성이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성이 비록 가상적 循環 組合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의 循環 規律에서부터 기원하고 있다. 단, 主運, 主氣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순서와 달리 일정한 시간 週期 속에서 계속 갈마들면서 순서를 바꾸는 점이 다른 것이다.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이러한 가상적 循環의 組合이, 원래 五行 순서대로 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차례로 전개되지 않고 순환 고리의 중간에서 순서를 바꾸면서 시작하게 되는 이유는, 자연의 변화가 일정한 規律에서 벗어나 서로 뒤섞여 혼란스러워지는 모순을 끊임없이 낳고 있으며, 이러한 모순의 발생과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이 곧 모든 생명현상의 創造 變化와 生死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IV. 參考文獻

1. 朴贊國. 懸吐國譯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22, 83.
2. 方約中, 許可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236
3. 楊力. 中醫運氣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p.34.
4. 王琦외 4인.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1983. p.370.
5. 任應秋. 運氣學說. 서울. 東文選. 1994. p.106.
6. 程思德. 素問注釋滙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313.
7. 周銘心, 王樹芬. 中醫時間醫學. 서울. 一中社. 1992.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傳統文化研究會. 1992. p.233, 243, 262.
9. 司馬遷. 全注全釋史記.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5. p.1141.

사물의 고유한 五行 특성이 비교적 변화가 적은 形質 속에 내재되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하면서 우선적으로 形質을 만들어 그 속에 原理를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